

'99 학생법정 위원회 첫 번째 공개 세미나

SAd.a.5

#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를 통해서 본 일본군 성노예여성들의 삶

- 귀국 후를 중심으로

주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학생법정 준비위원회

일시: 1999년 12월 18일, 오후 3시

장소: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교육관'

## 목 차

-시

전 위안부 할머니가 학생들에게

.....지난 8월 한일학생 워킹 샵 자료집에서

-발제문

1. 기억에서 역사로 .....미시사와 구술사를 중심으로

2. 귀환후 할머니의 삶

-영화소개

"calling the ghosts - A STORY ABOUT RAPE, WAR AND WOMEN" (유령을 부르며: 강간, 전쟁, 여성에 관한 보고)

1995년, 감독: 맨디 제이콥스, 카멘 젤린치

상영시간: 60분/기록영화

-2000년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학생법정소개와 함께 합시다.

## 할머님으로부터의 편지

어보게나 젊은이를,  
우리의 후손에게 확실하고 바른 교육을  
가르칠수 있도록 이렇게 빈다우

평생토록 한이 맺힌 여인네의 한많은 사연  
붙잡으려 해도 붙잡지 못한게 세월이다.  
내 가슴에 맺혀 있는 말 한마디 못한 채 백발이 되었네  
이제는 힘이 다 빠져 걷디기도 어렵구려

어보게나 젊은이를 말뚫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려는 정신대 할머니들  
영원히 가기 전에 한맺힌 사연들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지 않겠나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국으로 만들었던 일본정부  
그 무섭고 악랄한 왜놈들에게 사과 받을,  
일본놈들 혐없는 우리 한국 자식을 빼앗기고  
스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살아야 했던 우리 부모님들  
고무신도 아닌 짚신에 무명치마 무명저고리 순박한 우리 한국에 여인네  
강제로 끌려다 그 멀고 험악한 전쟁터에 성노예로 끌고 다녔던 일본국 군인들  
자기네가 이용할 수 없도록 병들어 죽게 되면  
그대로 땅속에 묻어버린 악랄하고 잔인한 일본국 군인들  
구사일생으로 내나라 조국 땅에 왔건만  
동방 예의지국이라는 우리나라 한국이기에  
부모형제가 살고 있는 내집 대문 안에 발도 들이지 못한 채  
행여 누가 알까 두려워 하스연 한마디 못하고 살아왔네  
자식네 빼앗기고 스리내어 울지도 못한채 사시다  
환병으로 세상을 떠나가신 우리 어머니  
14살 어린 나이에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왔건만  
여인의 몸에는 성병으로 시달려 처참하게 살았네,  
그래도 여자구실 해보려고 자식양기 원했건만  
그 몸에서 태어난 불쌍한 팔아이 어미의 병으로 청각장애아가 태어났네,  
일본놈의 전쟁으로 줄줄이 삼사대가 피맺힌 한만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하나  
이 원수를 그 누가 갚겠나

어보게나 젊은이를 이렇게 우리 한국에 여인네를 우리나라 대통령은 알고 계시는지  
한일기본조약에 들어있지도 않은 정신대 할머니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좌절감을 아니 느낄 수 없는 혐없는 여인네를

우리한국을 식민지나라로 만들었던 그자들,  
황금에 눈이 뒤집혀 한일조약을 허수아비를처럼 메친 그자들은  
역사의 적, 절대로 동반자는 안돼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당신네 조상이 저지른 일기에 정부가 저지른 크나큰 범죄를 스스로  
사죄하고 자기네 조상대대로 역사에 수모를 무릎꿇고 빌어야 할 것이다.  
여보게나 젊은이를, 우리한국의 자존심, 우리여성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한국 역사에 꼭 기록하여  
우리의 후손에게 확실하고 바른 교육을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부탁을 이렇게  
빈다우, 2000년의 오기전에

전 일본군 위안부 김윤심 할머니

## 일본군 성노예라는 개념을 쓰기로 합니다

---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오랫동안 '정신대', '위안부', '군위안부'라는 개념들이 혼재된 상태에서 명명되어 왔다. 특히 많이 쓰여온 위안부라는 단어는 성노예 문제가 '가해자에 의한 강제 폭력' 이라는 것을 은폐시키는 개념이다. 대안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노예 개념은 피해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개념인 동시에, 피해자가 강제로 겪었던 성적 착취를 드러내는 개념이다. 피해 당사자에게 있어서 성노예라는 단어가 그분들의 상처를 들추어내는 것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조심스럽다. 하지만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성노예라는 개념이 가지는 다소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라는 전제하에, 이 용어를 사용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제기가, 작게는 우리의 언설들이 할머니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피해자의 경험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과 이것이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발제문 I (요약문)

### I. 미시사적 역사서술의 의미: 진즈부르그

#### 1. 우리들의 입장에서 고찰해야 할 몇 가지 것들도 포함하여

미시사란 한 마디로 작은 역사의 이야기이다. 즉 이는 역사 연구의 관심을, 사회의 전반적 구조나 변화의 거대과정에서 작은 것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종래의 역사서술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을 발굴해내고자 하는 역사서술을 말한다. 즉 왕조나 지식인, 혹은 전체적인 구조의 차원에서 역사에 접근하는 학문이라고 보다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에 관한 학문'이다. 따라서 미시사적 역사서술이 전념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테두리를 결정하는 구조를 밝힌다는 보다는, 그러한 구조가 현실적인 힘을 발휘함으로써 초래된 권력의 문제들이다. 어떤 특정한 삶의 의미체계와 권력 관계가 구조적인 틀로써 성립되는 과정을 세세하게 그려내기 위해, 미시사는 일차적으로 인식 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키며, 구조화 과정 속에서 제외되고 소실된 것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sup>1)</sup> 즉 미시사가들이 목표로 하는 역사 서술은 전체적인 시각에 의해 예외적이거나 사소한 것으로 제외되었던 것들에서 과거에 실현될 수 있었던 역사의 다른 가능성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다.( 즉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

이 '작은 이야기'의 중요성은 거기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거나, 때로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 변화의 연쇄작용이 역사의 큰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이는 카오스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근대에 대한<sup>2)</sup> 종래의 사상사적 접근은 상층문화 혹은 지식인 문화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아닌지? 결국 역사에 대

1) 진즈 부르그의 '치즈와 구더기'라는 이야기가 이를 설명하는 예로 언급되었다. 이는, 1599년 중세시기 이단 재판으로 처형된 메노키오라는 한 방앗간지기의 삶을 생애를 그린 것인데, 메노키오는 당시 중세적 세계관으로써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근대적 사고의 원형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생각과 믿음에 의하면 '태초에 모든 것은 땅, 공기, 물 그리고 불이 뒤섞여 있었던 카오스였다. 그러한 카오스의 소용돌이로부터 물체가 생겨나게 되었다' (생략)

그가 이러한 독창적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로부터 주입된 믿음을 그대로 따르다기 보다는 그 당시 그가 접할 수 있는 책을 읽고 자율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데 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생각이 현재의 과학에 비추어 옳으나 혹은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진즈부르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역사의 연속성을 해체하고 볼 때, 하나의 기원은 어느 앞선 시기의 중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잠재적으로 혹은 역사의 가능성으로 있었다는 사실 그러하기에 미시사가 그러한 가능성들의 지평을 적어도 넓히고 때에 따라서는 역사를 새롭게 구성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2) 근대의 예를 든 것은, 당연히 미시사라는 것이 공격하고 또한 보완하려는 대상이 근대적 역사관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진보'나, 일직선적인 역사관의 형성은 근대 이후이기 때문이다.

한 개량적인, 통계적인 접근을 경계한다. 동시에 잊혀지고 소실된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일회적 사건을 넘어 커다란 연관관계의 형성에 개입하는, 새로운 구조를 발견해 내는 것을 그 과제로 한다.

물론 미시사 자체에 대한 비판들이 존재한다. (또한 우리들의 머리 속에도 몇 가지 혼란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전체를 보는 것이 과연 정당인가라는 문제 (어느 학문에서나 제기되어지는 객관화라는 관문을 통화하기 위해서)가 가장 큰 비판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진즈부르그는 역사라는 것의 특성, 즉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진실이나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인간 삶에 대한 다양하고도 대안적인 질서들을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미시사는 하나의 실험과 대안으로써 위치 지어질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문헌화되어 있는 '역사'라는 것들이 가지는 한계성- 문헌이라는 것을 대대로 제도내의, 혹은 권력 안에 사람들이 전유했던 정보 독점 매개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을 극복하는 하나의 가능성, 혹은 확신으로까지 미시사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노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답변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역사에 있어 밑으로부터의 변혁과 민중문화의 '또다른' 발견, 은폐되었던 역사의 복원 측면에서 미시사는 하나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 이것이 우리가 미시사를 이야기하는 이유이다.

## 2. 미시사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게 주는 의미

할머님들의 삶은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할머님들을 둘러싼 담론들 모두 정당하게 할머님의 삶 그 자체를 온전하게 받아들여 왔다고 보기는 힘들다. '위안부'문제가 사회 이슈화가 되고 싸워온 지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고 하지만 할머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여성으로써, 인간으로써 겪어온 투쟁의 역사는 당신의 삶 70년 전체를 통해 존재해 왔다는 것을 이제 우리 스스로 인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러한 담론들은 할머님들의 많은 삶의 모자이크 중 어느 특정한 색깔만을 유용하게 인정해 왔으며 그것과 또 할머님 개인 사이에는 많은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시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미시사는 지금까지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일직선상의 역사관념 속에 의미없는 것들로 이야기되었던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관점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할머님들의 역사 또한 이제까지 민족적이고 근대적인 코드로써만(주로) 읽혀졌을 뿐 할머님들의 삶 자체, 그리고 할머님들이 가진 주체성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되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실제로 의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 할머님들의 삶에 미시사적인, 그리고 생애사

적인 돋보기를 들이댄으로써 새로운 역사의 가능성,(그것을 여성의 역사라고 명명해도 좋을 듯 하다)을 열어 보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일직선상의 도상이 아닌 이미 할머니 삶 속에 내재해 있는(있을 지도 모를) 현재성을 규명하는 일이다. 기존의 거대한 역사 이야기 속에 배재되었던 할머니 삶의 전 영역에 미시사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은폐되고 재단되었던 할머니들의 삶을 올바르게 복원하고 진정한 여성연대, 일상으로 이야기되는 역사적 진실들을 폭로를 위한 작업에, 미시사는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의 지평을 주고 있다.

## II. 기억에서 역사로

### 1. 문제제기

인간의 경험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기억이라는 장치를 통해 여러 가지 형태로 재현된다. 수 많은 사적인 기억들 중에서 몇 몇의 것은 사회적 기억이 되고, 사회적 기억들은 일정한 선택 과정을 통해 역사적 기억으로 표출된다. 그러한 역사적 기억이든 경험을 재현시키는 여러 형태 중에서 대개 문헌으로 남게 된다. 문헌 자료는 가장 객관적 내지는 과학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경험의 총체적인 재현이라고 볼 수가 없다.

문헌자료가 최소한의 글을 일고 쓸 수 있는 계층, 대부분은 지배계층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피 지배계층의 삶은 지배층의 시각을 통해 보여질 수 밖에 없다.

이들은 자신의 삶의 목소리를 문자나 기록이 아닌 구전과 민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구전과 민속을 하나의 사적(史的)자료로서 인정하고 그것을 복원시키는 것이 총체적인 역사적 재현을 더 가깝게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에서는 역사에 대해 논의할 때 보수 진영이건 진보 진영이건 간에 역사의 신성성에 대한 신념을 상당히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신성시된 역사는 국가 내지 민족 차원에서 한민족 전체에 단일한 역사적 경험을 강조한다. 따라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많은 역사와 역사서술은 민족 전체의 수준에서 항상 논의가 되고, 그런 역사만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민족사, 국가 전체사 수준의 논의는 민족의 단일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한민족이라는 단일한 주체에서 대부분의 경우 여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역사 연구는 남성적이고 폭력적이고 유형적인 저항과 대응을 주로 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공과 사, 내외로 구분된 가부장적 이분법 속에서 여성의 경험은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여성의 경험은 역사성을 가지지 못했다. 즉 여성은

역사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의 삶의 경험은 역사적일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문헌 자료 속의 불평등은 공간적 차원에서도 지방사의 빈곤<sup>3)</sup>으로 나타난다.

### III. 여성사와 여성의 경험

역사에서 여성의 경험을 가시화 시키는 작업은 여성사로서 발현되었다. 여성사는 여성을 연구의 초점, 주체, 서술자로서 보면서, 이제까지 역사에서 보이지 않았던 여성들을 역사의 주체로 보이게 하고 역사가 얼마나 성차별적인(gendered)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Scott) 이는 여성의 경험을 역사적 과정에서 어떻게 가시화 할 것인가의 논의로 모아진다.<sup>4)</sup>

그러나 여성간의 공통점에 기초한 여성 경험의 특수성은 다름(difference)의 개념<sup>5)</sup>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라일리(Riley)는 여성의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은 시공간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여성의 일시성(temporality of women)을 주장한다. 이에 여성 경험의 다름을 밝히기 위해, 경험의 구성적 성질, 즉 주체가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었고, 사람의 시각에 어떻게 구조화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여성의 주체는 그 여성의 위치(position)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은 역사화 된 유동적인 흐름의 한 부분인 것이다.(Alcoff)

스코트(scott)는 여성 경험의 증거가 차이의 증거는 되지만, 그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작용하는지, 주체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답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 경험을 역사화(historicize)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주체의 자리 매김(subject-positioning)을 통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지방의 개념**: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지방은 단순히 지형학적 위치가 아니라 여성의 삶의 시공간적 위치와 배치를 포함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지방사 연구는 중앙중심주의, 국가 전체사에서 벗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개인의 삶의 시공간적 위치와 배치에 까지 넓혀져야 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 인류학적 지방사 연구는 중앙 중심적, 국가 전체사 중심적인 역사 연구에서 탈피하여 역사적 경험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지방의 맥락으로 연구의 초점을 이동시키면서 경험 주체의 주관적이고 일상적인 삶에 관심을 갖는다. 지방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 어떻게 침묵 당하고 주변화 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 중앙 대 지방의 대립 내지 위계 구도를 해체해서 다원적인 시각으로 지방을 바라보는 것을 지방사라고 한다.

4) 여성도 역사 발전에 공헌했다는 것을 보이거나(her-story), 성(gender)이라는 범주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작동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성별사(gender history)로 여성의 경험을 다양하게 가시화하여 왔다.

5) 즉 계급, 인종, 민족적 위치에 따라 여성도 다양한 경험, 존재의 의미 정체성이 있음이 밝혀졌으며, 권력의 다양성, 개인 정체성의 분절성을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여성 개인도 역사적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 IV. 구술사: 기억에서 역사로

즉 수도 중심의 문헌 중심의 역사 쓰기에서 소외된 많은 지방 사람들의 경험을 하나의 역사로 복원하기 위해 재현의 여러 형태 중에 구술사의 방법론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단일한 주체의 억압성을 풀로하고 그 안에 다름을 구조화하고 그 다름을 위계화하는 구조들을 밝혀서 이제까지 주변적이었던 여성사 연구를 활성화시켜 결국 하나 하나의 작은 역사(Micro-history)를 모아서 전체사(total history)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 1. 그 인식론적 방법의 전환: 자료로서의 구술사와 텍스트로서의 구술사

구술적 자료들은 자료로서의 풍부한 가능성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빙성이나 객관성이 없다고 인식되고 있다. 구술 자료들은 역사적 증거로서는 주관적이며, 私的(사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구술사가들은 기억의 사실성보다는 그것의 발달 과정, 즉 신빙성보다는 어떻게 기억이 작용하는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회상은 더 이상 얼마간의 과거의 반영이 아니라 현재 현실의 한 부분인 재현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Wachtel) 이에 구술사가들은 구술 자료들을 정의하고 그 유효성과 신빙성을 증명하려고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다.

구술이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적인 자료라는 위치성에서 벗어나 현실의 재현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우선 구술사를 史的자료의 위치에 놓을 수 있게 하는 인식론적 전환을 필요로 한다.

즉 구술사 연구는 연구자, 즉 인터뷰를 하는 자, 해석자와 연구 대상 즉 이야기를 하는 자, 화자가 하나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 내는 작업인 것이다. 그러므로 증언(생애 이야기)은 자료로서의 가치보다는 자기의 표현이나 주관적인 경험의 표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텍스트(그 뜻을 읽어내야 할 것, 그 뜻을 찾아내야 할 것)로 파악해야 한다.

### 2. 구술사의 본질

지나온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구술사의 본질은 상호 관련된 세 가지 특성 이야기(narrativity), 시간(temporality), 그리고 주관성(subjectivity)이다.

주관성은 자신의 경험을 의미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의미화 과정은 생애적 시간 속에서 경험한 것을 기억해 내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었던 사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는 나를

계속 만들어 가게 된다.

**시간**은 삶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 삶 자체는 항상 현재 살고 있지만 생애적인 시간은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시간의 고리인 것이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자기 모습에 대한 위치 점검, 경험의 주관적 이해를 통한 자기 모습에 대한 정당화,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하는 가운데에서 나의 삶과 나에 대한 의미를 항상 재창조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삶을 이야기함으로써 새롭게 형성된 나를 다른 사람이 해석하여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바탕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듣는 사람간의 공유된 경험 의미 체계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야기하는 구조나 방식이 되는 것이다.

즉 구술사 연구는 문헌중심, 과거중심의 역사연구의 해체모니에 대한 도전이다. 역사라는 것을 지식과 권력의 한 형태로 이해한다면 그 지식과 권력의 재현의 형태가 구술인가, 문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술과 문서를 통한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점에서 구술사는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들의 주관적 삶을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식 생산의 권력 구조에 대한 인식으로 이끌고 나아가서 대안적 또는 대항적 담론을 배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대한 문화 비평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므로 구술사는 공식적인 역사와 비공식적인 역사 사이의 긴장 상태에서 평범한 사람들, 피지배층의 세계들을 구한다.

따라서 구술사의 목적은 밑으로부터의 역사(from the bottom up)대항 역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것이 구술사가 대항 담론(counter-discourse)이 될 수 있는 근거이다.

구술사는 문헌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즉 피해자, 여성, 소수민족 등의 삶 이야기를 그것도 다수의 목소리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 다수의 목소리들은 지배적 사회적 담론 속에 의해 침묵되어진 삶의 현실들이고, 또한 간과되어질 수 없는 인간의 삶의 부분들이다. 그들의 삶 이야기들이 사회적, 역사적 담론으로 인정될 때 사회의 민주화, 다양화는 더욱 진척될 것이다.

## **V.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 **-생애 이야기의 주제와 서술전략-**

#### **1. 한국 사람들의 구술사에 대한 해석: 신세 타령을 중심으로**

유철인의 논문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의 구술사에 대한 연구는 한국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방식 중의 하나인 신세 타령이라는 말에 포함된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와 은유를 분석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신세타령은 자기의 신세를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신세타령은 이야기하는 사람의 현재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강하며 듣는 사람으로부터 그 정당화가 인정받고 공감되기를 바라는 이야기 방식이다. 이야기한다는 것이 나다움을 새롭게 찾아 자기 주변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전략이므로 고백을 통해 연극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 **2.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 **2-1. 순희의 생애 이야기**

6세 고아가 됨(교육을 받지 못함)- 19세 여공이 됨(동생을 교육시키기 위해)- 대학 출신의 남자와의 연애 결혼- 시어머니의 구박에 이혼함- 유부남인 공장 사장과 내연의 관계- 서울의 다방 생활- 미군의 색시집- 기지촌의 다방- 미군 두 명과 차례로 살게 됨- 미군의 청혼으로 결혼- 고향집에서 동생의 자살소식을 듣고 자살기도- 1971년 도미- 남편이 독일로 떠나자 약물 중독- 남편이 군대를 그만둠- 이제까지 남편과 살고 있음

### **2-2. 배우지 못한 고아로서의 삶: 생애 이야기와 주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나름의 삶의 맥락을 찾기 마련이므로 생애 이야기에서는 이야기한 자신이 제시한 삶의 맥락이 드러난다.

1) 첫 번째 결혼에서의 시어머니의 구박에 대한 이야기: 순희가 제시하는 삶의 맥락은 배우지 못한 고아라는 것이다.

① 구체적인 구박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기억함으로 다시 그를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맥락만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구박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혼전 임신이라던가 연애, 결혼이던가 하는 것이다.)

② 시어머니의 구박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구박의 정도와 자녀의 출산을 관련시킨다는 것이다. 아들을 낳은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순희는 자신의 일생을 배우지 못한 고아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한으로 삼아 그 한을 동생을 통해 풀려고 하였다.

2) 순희와 동생의 이야기: 순희는 남동생이 죽기까지 남동생의 교육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왔다. 순희가 동생의 뒷바라지를 맡았다는 것은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누

나가 가장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남동생을 위해서 돈 때문에 미군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산업화 과정의 한국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생이 자살함으로써 해서 배우지 못한 한을 풀지 못한다.

- 3) 미국에서의 약물중독: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4) 유부남과의 내연관계: 배우지 못해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래도 그 사람이 동생의 학비를 대 주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2-3. 남의 탓, 자신의 탓, 팔자 탓: 경험의 재현에 나타난 서술 전략

순희는 자신의 삶을 팔자로 돌리면서 미군과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삶을 팔자로 돌리는 것은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순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해서 단순하게 침묵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이야기 되도록 한다.

- 1) 객지로 나간 일: 동기는 동생을 위한 것이었는지 추측만 하게 할 뿐 명확하지 않다.
- 2) 동생의 자살: 배경은 설명하지 않고 동생의 죽음이 삶의 의욕을 잃게 했다는 것만 강조함, 동생이 죽기 전까지 한 모든 일은 동생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여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고 있음.
- 3) 이혼: 시어머니의 구박 때문이었다고 말함
- 4) 미군과의 결혼: 주변 사람들의 권유 때문이었음

중요한 결정에 대해 말할 때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남의 뜻에 따른 것을 이야기함. 또한 남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자신이 어리석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삶 전체를 팔자로 돌림

이러한 서술 전략은 신세 타령의 서술 전략이다. 즉 신세 타령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신의 현재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보이면서 듣는 사람도 그 정당성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일상 생활의 자연스런 이야기 방식이다.

### 2-4. 삶의 해석과 재현

순희는 미군과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한국 사회의 문화적 틀을 사용하고 있다. 즉 가족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을 표현한다. 순희는 남동생을 위해 미군과 결혼하였고 아들들을 잇기 위해 미군과 결혼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순희는 기지촌 여성, 자식을 버린 어머니 이혼녀라는 낙인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을 선택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순희는 남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책망하다가 결국에는 팔자 탓으로 돌리는 신세 타령의 서술 전략을 사용한다. 생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찾고자 하며, 듣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인정하여 주기를 바란다. 순희의 서술 전략은 자기 자신을 달래는 방식이며 앞으로의 삶을 견디는 방식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윤택림, 문화인류학 25집, 1994,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유철인, 문화인류학 22집, 1990, <생애사와 신세 타령-자료와 텍스트의 문제>

유철인, 문화인류학 29집, 1996,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생애 이야기의 주제와 서술전략>

유철인, 한국여성학 11집, <지방. 여성. 역사: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지방사 연구>

<<오늘의 역사학>>, 안병직 외 지음, 한겨레 신문사

## 발제문 II

### 1. 귀국 후 삶에 주목하는 이유

전쟁 당시 일본군 성노예 정책의 폭력성은 귀국 후 할머니들의 삶을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 사회의 성문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노예 경험에 대해 50여 년간이나 침묵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엄청난 물리적, 육체적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는 여성에게 강요되는 '절대적 가치'에 부합 될 수 없었던 여성들이 사회에서 배제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더욱 끔직한 것은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만든, 폭력의 피해자로 만든 온갖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들을 여성 자신이 내재화하도록 조장되는 것이다.

귀국 후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노예 경험자들을 '보편적인 행복한 삶'의 조건에서 벗어나도록 만든 사회 구조적 모순을 밝히고자 한다. 원치 않은 폭력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여성의 몸, 그 상처를 들추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성노예 경험자들의 삶을 통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억압들이 보다 분명해지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모순들 또한 분명해진다. 그리고 이는 어떠한 사료들에 기반한 역사적 사실 보다 진실에 가깝다. 이러한 작업이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읽어내고 고민을 지속시켜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2. 일본군 성노예 경험이 남긴 상처

#### 1. 정신적 심리적 상태

성노예 경험자들의 증언과 현재 중앙 병원의 검진 결과 등에서 보이는 것은 육체적인 질환보다는 정신, 심리적인 불안과 이상이 한층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노예 경험자들에게 나타나는 정신적 질환과 특징적인 심리상태에는

①대인 공포증 ② 정신 불안 ③울화 ④수치감 ⑤죄책감 ⑥분노, 욕망 ⑦자기 비하 ⑧체념 ⑨우울 ⑩외로움 등이 있다.

그리고 직접적인 대인 공포증 뿐만 아니라 남성기피증을 보이는 성노예 경험자들도 상당수이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반의 성폭력 피해자 후유증의 문제로 성적 기능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과는 연결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직후 성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성행위에 대한 혐오, 증오감, 성적 불안감, 성적 관심 감소 등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러한 정신 상태는 단순히 남성과의 만남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전반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을 마주쳐야하는 곳에 취업하고도 그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내가 군 위안부였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볼까 봐 두려워 자꾸 옮겨' 다녔던 것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불안 속에서 고생만 하는 생활은 죽지 않고 살아 남은 후회로 이어진다.

'이제 내 나이 한 이태면 팍십이다. 댁주에서의 일은 기억하기도 싫다. 도망쳐 올 때에는 고향 생각에 사무치고 어떻게든 문이라도 고향에 묻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살면서 고생고생 하다 보니 왜 그때 죽지 않았나 후회하는 생각들뿐이다. 이리 혼자 떠돌며 미친년처럼 살아온 이것이 사는 목숨인지 무엇인지.....'

성노예 경험이 있는 할머니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비하감으로 젖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자신을 몸을 파는 매춘 여성과 동일시하는 자기 평가에서 만들어진 죄의식과 수치감, 자신의 가해자를 구체화할 수 없는 분노, 살아온 세월에 대한 원망 등이 뒤섞여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체념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자신의 경험은 과거의 화석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뚜렷하게 살아 있는 현재의 감정으로 다가온다.

더욱이 이러한 감정들을 해소연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외롭고 고독한 생활에 대한 삶의 체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성노예 경험이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마음과 정신에 남은 것이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자기 몸에 대한 자결권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모욕감과 더불어 그 경험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서 받아야할 불이익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패배감에서 비롯된 매우 복합적인 심리적 외상인 것이다.

## 2. 육체적 상태

성노예 경험이 있는 할머니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의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구타 등으로 인한 외상, ②불임, ③성병, ④자궁이상, ⑤심장기관 이상, ⑥소화기관 이상(위염 등 소화성 궤양), ⑦폐 이상(결핵, 기관지염, 천식 등), ⑧장 이상, ⑨신장 이상, ⑩기타 당뇨, 약물 중독

등이 있다.

①에서 ④까지의 경우 성노예 경험으로 인한 직접적인 후유증인 반면, ⑤에서 ⑨까지는 성노예 경험 이후 고통을 삭이는 과정에서 생기거나 강화된 2차적 징후로 볼 수 있다.

구타 등 물리적 폭력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은 귀국 후 진통제 등의 약을 계속 복용하게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유증을 남겼다.

‘귀국해서는 낯양에서 하도 맞아서 거의 다 빠진 이를 해 넣었다. 몹이 아파서 낯양에서부터 먹기 시작한 진통제를 먹기 시작한 진통제를 돌아타서도 계속 먹었다.

불임의 경우는 대부분 본인이 알고 있는 반면 성병은 현재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 현재 중앙 병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은 할머니 중 50%가 매독 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할머니들은 자신이 성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보 받아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반면 불임의 경우 본인이 귀국 후 직접 진단을 받거나 장기간의 결혼, 동거생활에서 임신이 되지 않는 것 등으로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주위 이웃이 권하여 당시 경찰관이었던 3살 연하의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6·25전쟁이 나던 무렵 목포에서 살인을 꾸렸다. 4 여 년의 결혼생활에도 애를 못 낳아서 그 집을 나왔다. .... 병원에서는 자궁이 굳었다고 수술까지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

부인과 질환의 경우 일반 여성과 비교할 때 자궁탈출증 등의 증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출산 경험이나 장기간 성관계가 없었던 것이 그 원인이다.

현재 대부분의 성노예 경험자들은 결핵, 당뇨, 천식, 관절 등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귀국 후 열악한 생존 조건 속에서 평소 자신의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병이 나도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없었던 상황 등이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는 증언자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술로 가슴을 풀었다.’는 말을 한다. 많은 수가 성노예 경험자들이 위장 이상을 호소하는 것은 정신신체증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3. 결혼과정에서 드러나는 성노예의 경험

일본군 성노예의 경험이 결혼이라는 변수를 중심으로 한 삶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왜곡, 굴절되어 표출되는지를 살피는 것은 피해자들이 갖는 현재의 자기 인식과 정체감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된다. 당시 여성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여성의 위치와 존재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기준이었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관통하는 갖가지 이데올로기들이 성노예 경험자들의 삶을 파괴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들이었



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는 일본군 성노예 정책의 비인도적인 면과 그것이 한 개인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 1) 떳떳하지 못한 몸

해방 후 많은 수의 성노예 경험을 가진 여성들은 떳떳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들은 성노예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감당해야 할 상처였다. 특히 혼인 연령에 다다른 여성들에게 있어서 성노예의 경험으로 인한 갈등은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났다.

귀국하고 부모님 곁에서 몇 년 있었다. 부모님에게는 중국에서 식모살이를 했다고 말했다.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해도 혼자 산다고 했다.

어머니는 나를 시집 보내려고 성화였으나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내가 위안부였는데 누구와 결혼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내가 위안부였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공부도 하고 공장에도 취직했었다고 말했다. 나는 마음이 괴로워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고향에 돌아오지 1년 만에 온다간다 말도 없이 집을 나왔다.

성노예 경험자들에게 가장 크게 문제로 남는 것은 바로 '순결' 문제이다. 유교적 가부장제를 특성으로 하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순결이란 순수 혈통으로 가문의 맥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 결과 순결의 상실은 여성의 인간적 가치 상실로 직결되어 평가 되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여성 자신의 가치와 정체감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순결'이란 곧 '처녀성' 유무에 따른 판단이다. '혼전 순결'을 잃은 여성은 정상적인 삶에서의 일탈자로 취급되며, 사회에서 일탈자는 곧 죄인이라는 동식이 동시에 성립한다. 대부분이 1920, 30년대 출신인 성노예 경험자들은 전통적인 유교의 가치로서 '순결'을 여성의 도리와 덕목으로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내가 일본군들이랑 그렇게 한 게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더라도 강제로 그냥 그렇게 한 건데 그래도 내가 당연히 창피스럽고 죄스러운 느낌이 들지. 내가 옛날 일본에 가서 위안부 생활을 하고 군인들한테 몸을 함부로 내줬다는 게. 그게 강제더라도, 내가 좋지 않았는데 그게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처녀가 아닌 것은 당연하지. 그건 나쁜이 아니고 다른 할머니들이 시집을 간다고 해도 양심에 가책이 되요. 내가 그렇게 몸을 더럽게 굴렀는데 남자 보기도 창피스럽고 미안도 하고 안 그러겠어. 여자라면...

당시 여성들에게 있어서 순결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한다는 가치가 이미 내재된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인 것이다. 이것이 한국으로 되돌아온 피해자 여성들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더욱이 한국 사회는 이러한 죄책감을 더욱 강화하고, 성노예의 경험을 허용하지 않는 완고한 사회 규범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불안은 자기 인생에서 결혼을 더욱 먼 거리로 밀어놓게 한다.

임집에 걸려서 606호 맞아봤어. 그리고 그건 예비적을 봐야 된대. 팔에 그거 맞으면 냄새가 독한데 딱 쓰는 거 같아. 무지하게 독해. 그거 맞고 나면 얼굴에 열이 딱 올라. 그거 맞으면애도 못 낳는데. 3번을 맞았어. 일 년에 한 개씩. 거기 갔다 온 여자는 아이를 못 가져. 그렇게 못쓰게 되었는데 어떻게 애를 가지겠어.

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출산에 두고 있는 사회에서, 특히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는 것이 당시 여성들 대부분에게 자신의 노후와 직결되는 중요한 생존의 방편이었던 사회에서, 성노예 경험자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불안은 전 생애에 대한 불안과 좌절이기도 한 것이다. 성노예 경험의 흔적인 성병은 결혼을 포기하게 하거나 결혼, 동거 후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다. 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나 동거의 경험은 여자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기존 가족 질서에서 배제되어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확인 시켜준 결과 이상의 의미를 남기지 못한다.

결혼할 때 정신대 갔다 왔다는 걸 어머니가 이야기했지. 정신대에 근로자로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한거야. 위안부로 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래도 이미 처녀가 아니라고 어림 짐작했겠지. 성병을 옮겨 줬다고 매맞고 쫓겨나기 전까지는 그런 걸로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진찰을 받으니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 죽었대. 꺼내 보니까 고추 달린 아인데 얼굴부터 몸 반 쪽이 이미 썩어 있더라고. 그게 군 때문에 그렇대. 한 6-7개월 된 아이지. .... 병 옮았다고 거기서 나를 두드리고 매도 실컷 얻어맞고 내가 울면서 보따리 싸 가지고 집으로 왔지.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이 가장 유일한 생존대안이 되고, 결혼의 필수 조건으로 순결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성노예 경험으로 인한 두려움은 생존 자체에 대한 위협인 동

시에 여성이 가질 수밖에 없는 죄의식과 수치심에서 나오는 이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한 것이다.

## 2) 정상적 가족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서러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회적 존재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결혼이다. 이것이 성노예 경험자들이 남성들에게서 겪은 '지긋지긋'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희망했던 이유이다. 그리고 결혼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와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피해자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인한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 결혼이라는 제도에 편입되는 것을 피한다. 때문에 이들에게 '동거', '첩(소실)', '후처'의 형태는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 시집가는 건 생각도 못했지. 1.4후퇴 때 청주에서 17년 연상의 할아버지를 만나 동거인으로 살았지. 남자가 싫어서 의가 좋지 않았어. 그래도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기에 산 거지.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누구라도 의지해야 될 거야. 그 할아버지는 6년 전에 74세로 죽었는데 이젠 그 아들을 수양아들로 여기며 의지하고 살고 있지.

6.25전에 장사하다가 당시 부인은 이북 사리원에 있어 자식만 있는 사람을 만나 같이 살았어. 내가 이미 당당히 결혼 할 수 없는 몸인데 그냥 내가 의지할 수 있고 사람이 좋아 살았지. 내가 그 자식들 돌보고 가까운 곳에 따로 살고 있는 시부모 살림도 돕고 살았어.

의지할 대상으로 남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현실을 반영해준다. 그것은 직접적인 물질적 도움을 받는 다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다. 과거의 사치를 치유받는 다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다. 성적인 상대로서 필요한 남자의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 증언대로 단지 '남자'라는 이유 하나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남자라는 존재는 '물건'의 소속처를 알려주는 주인의 의미를 갖는다.

## 3) 되살아나는 기억들

성노예의 경험의 중심은 군인들과의 '성행위'에 관한 부분이다. 때문에 귀국 후 이들이 경험하는 '성관계'는 많은 갈등과 고통을 빚게 된다. 처나 첩이 되어 맺는 남성과의 고정적인 관계는 여성의 성적 소유권이 남성에게 전환됨을 의미한다. 피해자 여성에게 함께 사는 남성과의 성관계는 과거 경험과 맞물려 거부와 공포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올 수 없으며, 또 성폭력의

경험은 성활동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게 만든다. 이는 성노예의 경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과 일치한다.

나를 아껴주고 처녀가 아닌가로 별로 문제삼지 않아도 그리도 같이 살면서도 마음이 뜨끔뜨끔하고 양심의 가책이 되고. 내가 일본에서 농들한체 당한 것 때문에 그게 지긋지긋 한거야. 같이 자긴 하는데 별 흥미가 없고 거기서 겪은 것이 떠오르고. 지긋지긋 한거야.

결혼을 했다는게 후회스럽고 왜 어머니를 나를 결혼시켰나하는 원망마저 들어. 마음적으로 결혼을 해도 거기서 당한 것이 조금씩 조금씩 와. 그러니깐 남자 달겨드는 것이 싫어 아주 싫어. 거기서 당하는 거 마냥 자다가도 깜짝 놀래지고. 아주 자다가 질겁을 하면 거기생각이 나서 악을 쓰다 시피 하지. 그러다 불안해 지고 영감이 무서워지는 거야 거기서 겪은 공포증에 영감이 무서워지는거야. 같이 산지 한 2년도 못가서 불안해지기 시작해. 옆에 오기만해도 내가 정신을 못차리고.

증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던 성노예 경험의 피해의식은 일상생활에서 강화된다. 성노예 경험으로 인한 분노, 슬픔, 수치감 등의 감정은 죄책감이라는 말 속에 녹아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들이 갖는 죄책감은 단순한 침묵으로 위장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불안들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은 자책감마저 남겨놓게 된다.

난 결혼해서 하나도 재밌는거 없어. 괜히 공포증에 알기만 했지. 남자하고 자는거. 아휴. 밤이면 지옥같아. 차라리 안 들어오는 것이 좋아. 결혼 안하고 살았으면 그 고통은 안 당했을 거 아냐. 또 그렇게 마음 줄이고 살지도 않지. 내가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걸 말로 못하고. 싫은대도 억지로 상대해야 하잖아. 달겨드는데 어떻게 해. 그걸 내 맘 속에서 그냥 속이고 사는 거야. 그게 불안한 거고. 죄 짓는 거고.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성윤리 중 하나는 아내는 자신의 욕구와 무관하게 남편의 성적 욕구에 언제든지 응해야 하는 것을 아내의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사는 여자가 겪어야 했던 수 많은 서러움은 결국 환갑이 지난 나이에 후처 자리나마 '결혼'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치게 하는 강한 요구가 되었다. 성노예의 경험은 결혼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그 생활에서 밀어내는 주요 변수가 되었던 것이다.

#### 4) 불안한 생계

취업 사기에 의해 위안소로 가게 된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였다.

당시의 가난한 농촌 가족에게 딸은 입 하나 더한 존재 이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부여받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이것은 성노예 경험 이후 생계 방편으로 이들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이 육체적 노동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로 연결된다. 그러나 성노예 경험자들의 신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은 이들로 하여금 육체노동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했다. 이러한 속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제적 빈곤은 당연한 귀결이다.

‘집에 있기가 너무 괴로워서 못 있고 전라도 목포에 갔는데, 거기서 위안소에 있었던 조선인 근속을 만났어. 20살 때. 내 거기서 그 사람이 알아챌까 봐 창피해서 피하느라 혼났어. 딴 사람한테 또 소개받아 바에 갔었는데 그런데 그 바에 있는 여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데, 중국에 끌려가서 일본놈들 상대하다가 해방되고 여기로 짝 퍼졌다고. 그래 그것이 내한테 이야기하는 듯싶어.....’

‘겁에 질려서 어디 가 있지를 못해. 다시 집에 갔지.’

성노예 경험자들이 귀국 후 주된 생계 유지 방편으로 삼았던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 의존	식모	식당 일	행상	기생	매춘	공장 노동	막노동
10.3%	20.5%	14.1%	32.1%	9.0%	5.1%	3.8%	5.1%

(176명 중 78명 응답)

육체적인 고통 뿐 아니라 대인관계 기피증 등의 후유증세는 직업 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주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는 경제적 빈곤을 체념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누군가와 함께 생활을 했던 경우에는 대부분이 경제적 부양의 의무를 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같이 살아도 일 년 썩은 나갔다가 생각나면 들어오고. 안 해본 장사가 없어요. 생활비는 내가 벌 짓 다하면서 벌어 먹고 살고. 내가 지방 여기저기 다니면서 늦그릇 하고 스탠드하고도 바꾸고 이불 장수도 하고 갖은 장사 다 해봤어. ....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나운데 그렇게 고달픈데도 애 아버진데 어쩔 수 없지. 돈 벌면 뭐해. 돈도 안 갖다 주고.

함께 사는 남자에게서 받는 경제적 요구는 압박과 강요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몇몇 사례에서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성노예 경험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모두 자신이 받아야 할 ‘죄 값’으로 해석하고 있다.

누굴 탓해. 다 내가 죄 많은 탓이야. 그래도 그런 날 데리고 살았는데. 알 거 아냐. 내가 처녀 아닌거. 내가 다른 여자들처럼 암전히 있다가 결혼했으면 남편이 벌 어다 주는 돈으로 호강하며 살겠지만.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척 살림하면서 남자한테 마누라한테 하듯이 해라고 말 할 수 없잖아.

출산이 가능하여 아이를 낳았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길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 방편이라는 것이 더욱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친척 내에서 남보다도 못한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족과 친척을 있다는 것은 오히려 서러움만 더해주는 것 외에 어떤 의미도 없었다.

이처럼 귀국 후 사회적인 소외를 경험하는 할머니들은 생계 유지를 위한 주된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족 도움	친척, 친지 도움	국가 도움	자력	교회 등 단체	기타
13.4%	10.4%	56.1%	18.3%	0.6%	1.2%

노인에게 가족이 중요한 생존의 터가 되는 한국 사회의 특성으로 볼 때 60%이상의 신고자가 현재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곧 생존의 절대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노예 경험자들의 빈곤은 그들의 열악한 경제 상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방해하는 주변인으로서의 인식, 가족 등 재 충전할 공간의 부재, 운명론적인 체념적 경향들이 맞물려 낳은 실제적인 결과인 것이다.

#### 4. 피해자들의 신고 이후의 삶, 현재의 삶

증언자들의 말을 살펴보면 신고를 한 후 속이 후련했다는 이야기가 많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감춰야 하는 이야기로 알고 있었던 성폭력 피해에 대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에서 오는 속 시원함일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정 한 후에는 적극적으로 피해를 알려내고 일본에 사죄를 받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성노예 피해자들이 우리가 기대하듯이 모두 자신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수의 피해자가 가족에게 누가 될 것을 염려하거나 자신의 아픈 과거를 떠올리길 원치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후에도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

피해자들의 이후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단순히 이 여성들의 삶이 피해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자신에 대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싶었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가족관계 등에서 소속감을 갖고 싶어했다. 또 자신이 한 일로 인정을 받고, 자신도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또 자식, 남편, 동물, 취미, 인간관계 등 어디엔가 몰두하고 애정을 쏟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원하였다. 피해를 받았던 기억 때문인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편을 끼치지 않고 싶어하고,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삶에서도 당연히 필요로 되는 안정과 소속감, 애정과 자아실현의 욕구인 것이다.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들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는다. 그것은 자기 인식에 대한 변화와 더불어 피해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의 확립과 여성들의 공동 인식,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해결운동과 전반적인 여성 인권에 관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신고를 하고 증언을 하면서 할머니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갑갑함, 혼자 삭이던 울분을 표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해방감을 맛보았다. 강덕경 할머니의 경우에도 증언을 하게 된 계기가 “우선 하소연이나 실컷 하자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의 누구에게 털어놓고, 말하고 싶었던 욕구는 50년이 넘는 시간동안 억눌린 감정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억눌림에서 벗어나는 자기 치유의 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자기인식을 달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피해자들이 갖고 있던 부정적인 자기 인식은 ‘나는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는 식으로 대개 당연하게 추구하는 삶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소극적인 삶에 대한 태도를 가지도록 하였다. 자기 인식을 부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은 부족하다는 존재감, 이 삶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 죽었어야 한다는 식의 계속된 정신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증언을 하면서 자신들의 과거의 경험이 결코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나는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상당한 자기인식의 발전이다.

자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나서는 문제가 더욱 명확하게 정리되었고, 이제라도 해결을 위해 좀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단지 자신만의 문제로만 인식했다면 피해자들의 적극적이 해결노력이 오늘에 이를 수는 없었을 지도 모른다. 이것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다른 여성들이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타심의 발현일 수도 있다. 김윤심 할머니가 신고를 두고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서게 된 것은 지금까지 숨어 살아온 한국 여성들을 위해 나 하나 건디자“라는 마음이었다고 한다. 또 ”우리와 같은 인생을 또 겪어서는 안되

졌기에 나의 경험을 밝힌다.“라는 강덕경 할머니의 증언도 그러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군 성노예라는 피해의 경험을 자기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의 문제로 확대 인식했다는 것은 여성운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피해자들은 적극적인 해결의 주체로 자신을 인식함으로써 자기 존중감과 자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운동을 한다는 것은 즉, 자신이 남을 위해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나도 기여를 하는 존재라는 의식은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또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귀중한 존재로서 증언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서 오는 자긍심도 피해자들이 겪은 중요한 변화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신고 이후의 삶이 좋은 쪽으로만 흐르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고 사람들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하던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야 하는 것에서 오는 고통을 받는다. 김순덕할머니의 “항상 내 가슴만 터져나 갈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말을 하니까 조금 낫지만, 일본에 가서 증언을 하고 나면 옛날에 겪은 것이 생각나 악몽을 꾸곤한다.”는 증언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등에서 수요시위 장면을 보거나 피해자들이 인터뷰하는 것, 일본과의 전쟁을 다룬 영화 등만 보아도 싫은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이것은 고통스런 기억을 자극하고 재생시키기 때문이다. “난 지금도 일본 전쟁 영화 나오면 보기 싫다고 그라고 그래여. 텔레비에서 노인네들 나와 보상 뭐하고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보기 싫어 안봤어요.”(김성숙 할머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이후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피해자들도 많을 것이다.

증언과 자신을 세상에 드러낸 것은 일종의 자기 치유의 의식이다. 세월이 지나 잊혀지거나 정신적인 압박을 덜기 위해 왜곡된 기억도 있지만 무의식중이라도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피해의 사실들에 대해 드러낸다는 것은 그것에 직면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피해자들 스스로가 잡아낸 것 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머뭇거렸으나, 남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듣고 싶어한다는 것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신의 피해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깨달음은 자기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고, 공헌하는 존재라는 것에서 오는 자긍심의 고양을 가져온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곱씹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증언이나 인터뷰 등에서 부딪히는 민감한 질문들에 대해 곤혹스러웠다. 또 청중들의 반응에 의해 자신의 경험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특히 배상문제와 연결되어 더욱 많이 당했



다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유언비어로 자신의 피해를 더욱 과장하는 가슴아픈 일이 있기도 했다.

훌륭한 점은 신고 이후에 보여준 적극적인 문제 인식과 행동이다. 이것이 여성의 공통적인 역사일 수 있고, 여성의 문제로 이해되면서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여성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로 그것을 규정하고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수요집회참석과 행사, 증언에 활발한 참여가 그렇다. 또 자신들의 생각과 삶에 대해 노래로 풀어 내거나 책을 집필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고, 나아가 무력갈등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여성의 인권 문제들을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부끄러운 건 우리가 아니고 너희다>등의 책을 쓰신 김윤심 할머니는 “우리들의 문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 오지 않게 하게 위해 역사 교과서에 사실을 기록하여 누구나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깊이 반성하고 뉘그러고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네 나라가 저질렀던 만행을 하루빨리 한국 여성들에게 사죄하고 전쟁범죄를 처벌받기 바랍니다. 내가 온 몸으로 지고 온 고난의 한평생, 내 복 받지 못한 생의 매듭 하나를 이렇게 풀고자 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를 바로 세우고 키우려면 여성의 힘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나 나의 남은 생을 기도하며 지킬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신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것은 이들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일련의 운동과 활동들의 의의와 주체로서의 피해자들의 경험 드러내기와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자리매김의 의미를 찾게 해줄 것이다. 또 현재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피해자들이 삶의 욕구를 짚어보고 진정한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맺음말

이상의 성노예 경험자들에게 남겨진 휴유증과 그것이 일생을 통해 연속적으로 피해의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에서 성노예 정책의 폭력성은 여과 없이 드러난다. 이는 성노예 정책이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절과 순결을 강조하고 남성의 성적 욕구 해소 방편으로 손쉽게 그것을 박탈하는 이중적 성문화 속에서 구성되고 실행되었다는 것을 밝혀준다.

이 글에서 명확한 것은 성노예 정책의 피해가 현재의 일로 또렷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성노예 경험은 결혼제도에 편입되는데 많은 장애를 남겼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과거를 은폐하며 살아갔다. 생존을 위하여 여타의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택했지만 이것의 대부분이 또 다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성노예 정책은 여성을 성적 수단화하는 가부장제의 이중적 성문화가 낳은 여성에

대한 명백한 범죄이다. 그리고 여전히 현재에도 전쟁시 성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직접적 가해자인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밖에 한국사회가 해야 할 중요한 몫이 있다. 그것은 피해자들의 심각한 휴유증, 외상 등을 치유할 수 있는, 경제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생각하며 보는 영화이야기

유령을 부르며: 강간, 전쟁, 여성에 관한 이야기

CALLING THE GHOSTS: A STORY ABOUT RAPE, WAR AND WOMEN

제작연도: 1995년 감독: 맨디 제이콥스, 카멘 젤린치 상영시간: 60분/기록영화

### 영화내용

다민족 국가였던 유고에서 내전이 발발하자 같이 어울려 살던 기독교도 세르비아인들과 회교도들, 그리고 크로아티아인들은 하루 아침에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며 세르비아계의 잔인한 인종말살정책이 시작되었다. 이 영화는 과정에서의 폭력적 참상을 특히여성들에게 가해진 폭력과 고통을 증언하고, 그것이 전쟁의 부산물로서 우연히 부분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세르비아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었음을 폭로하고 있다. 특히 이 다큐멘터리는 실명의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하고 폭로하며, 이 문제를 보스니아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전세계의 여성들이 공통으로 당면한 문제임을 언명함으로써 국제적인 연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갖고 있다. 1992년 4월 보스니아의 prijedor시가 세르비아계 군인들에 의해 장악되자 40대의 변호사인 jadranka cigelji와 판사인 nusreta sivac은 인텔리이자 회교도라는 이유로 세르비아 군인들에 의해 omarska camp로 끌려갔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이기도한 이 두 여성들은 이 수용소에서 그들이 평소에 잘 알던 같이 커피를 마시거나 일을 했던 그래서 이름을 아는 이웃들로부터 자행된 강간과 죽음에의 공포에 시달리며 이전보다 더욱 깊고 강한 연대감을 갖게 된다. 다행히 그곳을 빠져나와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로 탈출한 그들은 거기서 세르비아 군대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적 살상과 폭력을 세상에 알리고자 힘을 모은다. 그들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여성연합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힘을 모아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6년 6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전의 전범재판소에서와는 달리 강간을 전쟁의 부산물로서 묵인하지 않고 최초로 유죄판결임을 선고했다.

강간은 여성의 몸이 마치 전리품처럼 다루어지는데 기인한다. 전투원에 의한 강간은 일종의 고문행위이며, 명백한 국제법의 위반이지만 극히 소수의 정부나 무장반대집단들만이 분쟁중의 강간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니아에서 이루어진 군대의 조직적 강간행위는 사상유례없는 언론의 집중을 받았고, 광범위한 성폭행 사례는 세계를 경악케 했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집이나 마을 거리에서 군인들에게 강간당했고, 감옥의 여성수인들은 군인과 교도관들에게 강간을 당해야 했다. 많은 여성들이 호텔이나 혹은 군인들이 강간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건물에 구금되었다. 강간범은 바로 분쟁 당사자 양국의 군인들이었고, 거의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강간의 피해자가 되었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회교도 여성들이 그 대상들이 되었다. 이들은 세르비아군 또는 민병대원들에게 강간을 당했고, 이후 강간은 회교도들과 크로아티아인들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는 전투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인해 수천명이 자신의 집과 고향을 등지게 되었다. 유교연방의 분쟁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강간은 민족말살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 예를들어 특정민족집단에 위협을 가하고 그들을 몰아내는 수단으로써 마을주민 모

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강간을 한다는 믿을만한 보고가 있다.” 강간은 결코 전쟁중에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두집단간의 충돌도 아니다. 전시에 강간이 더욱더 확산되는 경향은 평화시의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불평등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자신의 책무를 준수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할 때까지 강간은 아주 유용한 공격무기가 될 것이다.

### **🐼 영화감상포인트!!!!**

영화의 처음과 끝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말하고 있다. 특히나 하반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흘러 들어서는 않될 이야기가 많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전시중 발생한 강간에 대한 유죄판결을 한것도 주목할 점이지만, 강간이라는 부분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라고 규정하는 것 또한 그러하다. 그뿐만아니라 일본전범 처벌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진짜 핵심전범자는 처벌되지 않고 몇몇 범죄의 정도가 낮은 사람들만 처벌하는 선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범죄자가 누구인지 알지만 단 1사람만만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워지고 아직도 수만의 전범자들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잘 봐라봐야 한다. 2000년 학생법정과 국제법정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할 국제재판중의 하나!!!

그리고 사건현장에 카메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여 문헌들로 대변되는 증거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경험에 근거한 증언이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은 더욱 그러하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 미시사로 분류되는 증언사를 다루는 이유가바로 이것이다.

또하나는 전시중 가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 즉 이번 사건과 같은 것이 과거 발생한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와 바로 미래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전시중의 반인권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일인 것이다.

끝으로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후 문제가 제기되고 국제재판소에서 유죄로 다루어진 이것은 우리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비교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함께 합시다!!**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법정 준비위원회에서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거쳐하고 계시는 할머니님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겨울날씨에 하기 힘든 일들도 도와드리고, 우리가 책으로 나와 있는 증언뿐만아니라 할머니와 가까이하면서 우리가 법정에 담고자하는 할머니의 귀환후 삶에 대한 경험들을 직접 듣기도 하고.....

그동안 가깝게 다가가지 못했던 할머니에게 다가가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열리는 수요시위도 정기적으로 계속 참여하려고 합니다. 오늘 공개세미나를 통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은 학생법정 준비위원회로 연락주십시오.

## <학생법정 활동내용>

### 2000년 일본군 성노예 학생 법정

#### **왜 2000년 학생 법정인가?**

2000년 국제법정(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법정)은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가 저지른 식민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죄를 묻고 전범들의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2000년 학생 법정은 그 피해 할머니들이 겪는 현재적 고통에 주목합니다. 일본정부의 사과와 전범자에 대한 처벌이 갖는 의미들을 여성 인권 전반에 걸친 의미들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작업으로 확대 시키는 것이지요. 세계의 모든 곳에서. 전쟁중은 물론 일상의 폭력속에 놓인 피해자와 우리들의 연대(분명히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를 확인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역사를 잘라내기 위해 2000년 학생 법정이 제기되었습니다.

#### **2000년 학생 법정의 활동 목표입니다!**

2000년 학생법정은 1998년에 학생회별로 제기되어 1999년 1월 8일 첫 연대모임에서 정식제기되어 학생법정 진행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법정을 준비하는 모임에서는 하나의 사업 치루기식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여성억압의 구조가 첨예하게 나타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실을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 학생들의 적은힘이나마 역할을 찾아가면서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주역이 될 것을 결의하고 실천하는 공간으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활동의 중심 역시 2000년 4월 학생법정을 성사하기 위한 실무적인 활동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 진정한 이땅의 평화와 여성인권에 대한 지식들을 알아가고 학생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가고자 하고, 더불어 아시아 최대 피해국인 한국학생들의 활동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자 합니다.

#### **2000년 학생 법정의 구체적인 사업과 활동입니다.**

학생법정은 1999년 1월부터 모임을 시작하여 6월 게이맥두갈 초청 국제세미나가 진행되기까지는 학생이 주축이 되어 많은 활동들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6월 게이맥두갈 초청 국제세미나와 일본 오비린대학교 학생들과의 한일 워킹숍을 계기로 학생중심의 많은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준비위의 활동은 주2회 정기모임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관련(무력갈등과 여성폭력등....) 문제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학생법정 준비를 위

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

12월 18일: “할머님 증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바라보기” 공개세미나

1월말경(일정은 논의후 결정): 한일간 학생교류를 통한 함께하는 자리

2월중: 역사탐방 “새세기엔 사라져야할 여성인권 유린의 현장을 찾아가다”

(코스미정: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기지촌 여성의 현장, 수요시위등)

3월: 학생법정 기획홍보1 “2000년 4월 학생법정은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4월초: 학생법정 기획홍보2 “2000년 4월 학생법정 준비현장과 학생법정을 미리 본다.”

2000년 4월말: 일본군 성노예 학생법정 진행

**2000년 학생 법정을 함께!!!**

2000년 학생 법정을, 평화를 사랑하는 학생들과 같이 하려 합니다.

한국과 일본등 학생들의 공동 워크샵과 여성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 탐방 등이 계획 중입니다. 학생법정 준비위원회와 같이 하고픈 이들의 참여와 의견을 받습니다.

**2000년 학생 법정은 요구한다!**

1.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진상을 밝히고 배상하라!

1.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라!

1. 전쟁 중, 무력 갈등시 여성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즉각 중단하라!

1. 귀국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중시켰던 가부장제의 모든 요소를 단호히 반대한다!

1. 반여성적인 다양한 제도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통해 얼룩진 20세기 역사를 마감하고 여성인권과 평화가 존재하는 희망의 21세기를 청년의 힘으로 건설하자!

1.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역사를 즉각적으로 규명하고 후대에 올바르게 교육하라!

**2000년 학생 법정은 전세계인의 관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인권과 평화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2000년 학생법정 홈페이지: <http://witness.peacenet.or.kr>

e-mail: [jdh@peacenet.or.kr](mailto:jdh@peacenet.or.kr)

2000년 12월 국제법정과 함께하는

2000년 4월 한국학생법정 준비위원회